



## 유로존 위기 해법, 긴축에서 성장으로 변화 조짐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,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과 실업률 최고치 경신 등으로 스페인발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심화됨.

- S&P는 4월 26일 스페인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‘A’에서 ‘BBB+’로 2단계 하향조정하였으며, 4월 30일에는 스페인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 조치함.
  -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은 재정적자 악화와 성장세 둔화 우려 확대이며, S&P는 재정위기가 은행권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Santander(‘A+’ → ‘A-’), BBVA(‘A’ → ‘BBB+’) 등 16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함.
- 2009년 경기침체를 경험한 스페인 경제는 2011년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2011년 4/4분기 (-0.3%), 2012년 1/4분기(-0.3%) 다시 마이너스 성장하는 더블딥을 경험하였고, 실업률은 2012년 3월 현재 24.1%까지 상승.

■ 스페인발 위기 우려에 유로존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5월 첫째 주 유럽 재정위기 불안이 최고조에 달함.

- 5월에는 프랑스 대선 외에도 유로존에 많은 선거가 몰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.
  - 5월 6일 그리스 총선은 신민주당 승리가 예상되나(지지율 신민주당 23%, 사회당 14.5%) 단독 정부 구성이 어려워 그 이후가 불투명함.<sup>1)</sup>
  - 5월 13일에는 독일 지방선거가 있으며, 5월 31일에는 신재정협약 비준을 두고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임.<sup>2)</sup>

1) 그리스 연립정부는 재정 긴축정책에 불만을 가져온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긴축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춤.

2) 5월 말 예정인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“신재정협약” 비준안이 통과될지 의심스러운 상황. 아일랜드의 재정적자 규모와 성장세를 볼 때 비준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.

- 유로존의 경제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긴축재정 보다는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게 됨.
  - 전문가들은 스페인 정부가 1%p 긴축재정을 취할 경우 2~3%p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함.
    - 체감경기가 나쁘고 은행부문이 취약한 경우 정부의 재정 긴축은 민간소비와 투자 확대에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분석함.
  - 반롬피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정책의 초점을 긴축에서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, 6월 EU 회담에서 경기부양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.
  - 유럽중앙은행(ECB)도 4월 25일 재정긴축보다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했으며, 5월 ECB통화정책회의에서 이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됨.

(Wall Street Times, 5/1)